

# 2016년 신흥국 경제 주요 이슈 및 전망

I. 신흥국 주요 이슈 및 위험요인 분석 .....	1
1.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신흥국 위기 가능성 .....	2
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확산 위기 .....	2
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위기 동향과 전망 .....	6
2. BRICs 주요 정치경제 이슈 .....	9
가. 브라질, 재정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불협화음....	9
나.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 극복을 위한 노력 .....	11
다. 인도, 모디노믹스 추진 현황과 전망 .....	13
라. 중국, 제13차 5개년 계획과 신성장 패러다임 ...	15
II. 2016년 신흥국 경제전망 .....	17
1. 아시아 .....	18
2. 중남미 .....	24
3. 중동·아프리카 .....	30
4. 동유럽·CIS .....	38



# I . 신흥국 주요 이슈 및 위험요인 분석

1.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신흥국 위기 가능성 .....	2
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확산 위기 .....	2
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위기 동향과 전망 .....	6
2. BRICs 주요 정치경제 이슈 .....	9
가. 브라질, 재정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불협화음....	9
나.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 극복을 위한 노력 .....	11
다. 인도, 모디노믹스 추진 현황과 전망 .....	13
라. 중국, 제13차 5개년 계획과 신성장 패러다임 ...	15

확인 : 팀	장 전선준 (3779-5707) jsjun@koreaexim.go.kr
작성 : 선임조사역 오경일 (3779-6664) oki1122@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조영관 (6255-5759) ykj@koreaexim.go.kr	
책임조사역 박종국 (6255-5704) parkjk@koreaexim.go.kr	
조 사 역 조현수 (6255-5712) hsc@koreaexim.go.kr	
조 사 역 장은진 (6255-5716) eunjin@koreaexim.go.kr	

## I. 신흥국 주요 이슈 및 위험요인 분석

### 1.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신흥국 위기 가능성

#### 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확산 위기

##### □ IS의 대규모 테러 공격, 중동을 넘어 유럽으로 확산

- 최근 서방 연합군의 연이은 공습으로 수세에 몰린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이슬람국가)는 존재감을 과시하고 추종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의 동시다발적 테러를 자행해 오고 있음.
- 특히 작년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참사와 올해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 공격은 IS의 대규모 테러 대상이 중동을 넘어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는 상황임을 보여줌.

##### < 2015년 하반기 중 IS의 주도로 3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테러 공격 >

발생일자	발생장소	테러 유형	사망자 수	부상자 수
7월 17일	이라크 바그다드	자살폭탄	180명	170명
8월 10일	이라크 디얄라	자살폭탄	50명	80명
8월 13일	이라크 바그다드	폭탄	76명	212명
9월 3일	예멘 사나	자살폭탄	32명	92명
10월 5일	이라크 바그다드	폭탄	57명	-
10월 10일	터키 앙카라	자살폭탄	102명	508명
10월 31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 상공	여객기 폭발	224명	-
11월 12일	레바논 베이루트	자살폭탄	43명	240명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총기난사 등	130명	368명
12월 11일	시리아 텔 타메르	자동차 폭탄	60명	8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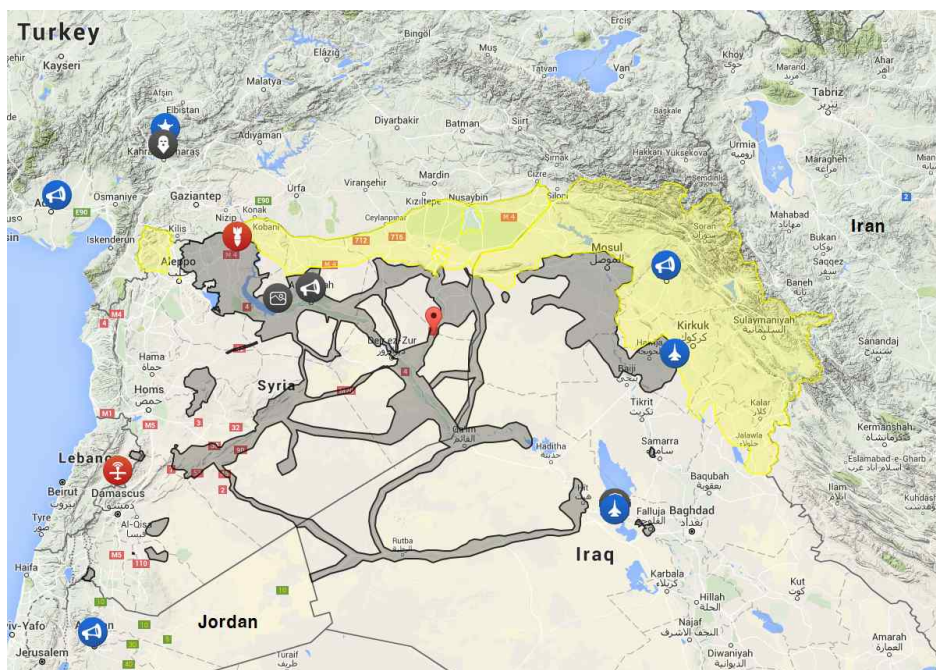
- IS는 자신들에 동조하거나 충성을 맹세한 세계 각지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은 물론, 이른바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서방 세계의 자생적·단독적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과의 연계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 테러를 추진하고 있음.
- 유럽 내의 무슬림 이주민 2·3세대는 무슬림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소외, 그로 인한 높은 실업률 등으로 종교적 극단주의에 쉽게 경도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외로운 늑대' 형의 테러리스트 양산에 일조하고 있음.

- 한편, 중앙아시아의 온건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에 포섭되어 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에 가담하려다 적발되는 젊은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음. 자국 정부의 억압을 받아온 중국과 러시아 내 이슬람계 소수민족들에 의해 구성된 반정부 조직들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과 연계하여 테러 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IS에 충성을 맹세한 주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

지역명	국가명	조직명
중동, 북아프리카	알제리	Jund al-Khilafah
	이집트	Ansar Bait al-Maqdis
	이집트, 가자지구	Mujahideen Shura Council
	튀니지	Ansar al-Shari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Boko Haram
	서아프리카	Al-Murabitun
	소말리아	Al-Shabaab
아시아	인도네시아	Jemaah Islamiyah, Jamaah Ansharut Tauhid
	파키스탄	Jundallah
	아프가니스탄	Wilayat Khorasan
	필리핀	Abu Sayyaf, Bangsamoro Islamic Freedom Fighters
러시아-CIS	러시아	Caucasus Emirate
	우즈베키스탄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 이라크와 시리아 내의 IS 점령지역 지도 >



회색 부분: IS 점령지역 / 노란색 부분: 쿠르드자치정부 군사조직 등 장악지역  
 자료: liveuamp.com

## □ IS 근거지, 리비아 이전 가능성 확대로 유럽에 대한 위협 가중

- 파리 테러 이후 IS의 가장 중요한 거점인 시리아 Raqqa에 대한 서방 연합군의 대대적인 공습이 이어지자, IS 지도부는 내전으로 무정부 상태인 리비아의 지중해 연안 도시 Sirte를 점령·통치하며 조직원 수를 늘리고 있음.
-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카다피 정권 붕괴 후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한 이슬람 주정부와 동부 투브루크의 친서방 정부가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여 대립 중이며, 수많은 군벌들이 서로 군사적 충돌을 거듭하여 치안의 공백이 일상화되어 IS를 비롯한 외부 세력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임.
- IS는 2015년 2월 Sirte에 처음 침입하였으며, 현재 IS 대원 5,000여 명이 이곳에 주둔한 것으로 알려짐. 최근에는 인근 Abu Qurayn과 Nofaliya도 점령한 것으로 파악됨.
- 리비아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84%가 유럽으로 수출되며, 그 중 상당량이 Sirte에서 선적됨. Sirte는 동쪽으로는 주요 유전과 정유공장 지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IS의 우선 점령목표가 되었음.
- IS는 점령지의 유전과 정유소를 정상적으로 가동코자 원유시설 운영 경험자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서방의 안보 전문가들은 IS가 전략적 요충지인 Sirte를 거점으로 삼으면 유럽 등 서방 세계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Sirte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간의 거리는 643km에 불과하며, 따라서 IS가 궁극적으로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본토로 공격을 확대코자 Sirte를 전초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 테러 확산으로 신흥국의 무역·투자 위축 야기

-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유입 사태에 이어 파리 테러로 테러리스트의 유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EU 내무장관 회의는 2015년 11월 20일 EU 외부국경 통제 강화에 합의한 데 이어 12월 4일 긴급 상황시 허용되는 내부국경 통제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 난민 위기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 최근 수개월간 국경을 통제하고 있으며, 지난달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도 북부 국경을 통제하는 등 EU 내부 국경 통제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통제 허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날 경우, EU 역내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쉥겐 조약<sup>1)</sup>을 사실상 사문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실제로 EU 회원국들이 아예 쉥겐 조약을 폐기하는 논의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됨.
- 파리 테러의 후유증으로 인한 쉥겐 조약의 개정과 그에 따른 내부국경 통제 강화는 EU 국가들 간의 물류를 저해하여, EU의 역내무역 저해는 물론 신흥국들을 포함한 역외국들로부터의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쳐 세계무역의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우려됨.
- 함부르크(독일), 로테르담(네덜란드), 안트베르펜(벨기에) 등 유럽의 주요 무역항들을 통해 수입되는 상품들이 타 국가들로 수송되는 과정에서 국경검문 강화로 물류가 지연되어 무역 증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 한편, 중동·아프리카 산유국들의 원유·천연가스 생산시설과 정제시설, 유조선과 천연가스 운반선 등에 대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
- 원유·천연가스의 생산 및 수출입이 테러로 인해 차질을 겪을 경우, 신흥국들은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어 경제성장 둔화와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에 직면하게 됨.
- 아울러 나이지리아 등 테러 위협이 특히 고조되는 중동·아프리카 신흥국들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 저해로 인해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다각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됨.
- 테러 위협에 대한 공포는 특히 관광 부문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는 바, 이집트, 튀니지, UAE(두바이) 등 관광산업에의 의존도가 높은 일부 중동 신흥국들은 테러 발생시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됨.
- 테러의 범세계적 확산은 이와 같이 선진국과 신흥국을 막론하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1) 쉥겐 조약은 EU 28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EU 4개국 간 자유통행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적용대상국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임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현재 실시 보류 중임).

## 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위기 동향과 전망

### □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으로 주변국과의 영유권 갈등 심화

- 중국은 1950년대 초부터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해 왔으며, 1990년대 이후 동해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베트남 등 주변 동남아 국가와의 갈등이 심화됨. 이에 당사국들은 2002년 국제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키로 합의하고, 2011년 동 문제와 관련한 상호간 준수지침을 마련하였음.

\* 중국 하이난 남부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사이에 위치한 350만 km<sup>2</sup> 해역으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에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 남중국해는 원유(110억 배럴, 미국 에너지정보청 추정), 천연가스(190조 ft<sup>3</sup>)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에도 전 세계 해상무역량의 40% 이상이 통과하는 곳임. 아시아 해상기지 건설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인식되어 지정학적 중요성이 매우 큼.

- 최근 중국은 에너지안보 강화, 해상교역 거점 확보 등을 이유로 남중국해에서의 해상영향력을 더욱 확대코자 함.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 사이에 위치한 난사군도(Spratly Islands) 내에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ASEAN\* 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총 10개국



## □ ASEAN 국가 중 필리핀·베트남과 중국 간의 관계 악화

-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상영향력 확대 방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은 동 지역의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 극심한 대립관계를 보임.
- 필리핀은 중국의 영해권 침해 문제로 2015년 7월 UN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한 바 있음. 또한, 최근 중국의 인공섬 건설로 인해 반중 정서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간 군사적 충돌위기 가능성도 보임.
- 베트남은 2009년 중국과의 육상국경선은 확정했으나, 해상국경선은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분쟁을 겪고 있음.
- ※ 2015년 5월 중국 해군선박이 베트남 국영석유가스개발공사 시추선 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반중 정서가 확대됨. 또한, 중국이 2014년 5월 분쟁 해역에서 석유 탐사를 개시한 이후 2015년까지도 탐사를 지속하여 양국간 관계가 악화
- 2014년 1월 필리핀 정부는 난사 군도의 해상안보를 위해 공군과 해군을 배치하였고, 동년 6월 중국이 실질적 지배권 강화를 위해 인공섬 건설을 추진하였음. 이후 아키노 정부는 '대미 관계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미국의 필리핀 군사기지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방위협력확대 협정을 체결함.
- 인공섬 건설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인공섬이 건설이 공군기지 구축,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함.

## □ 미국·일본의 영유권 분쟁 개입으로 군사·정치적 대립 양상

- 미국과 일본은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동남아 국가들을 지지하고 중국의 해상영향력 강화를 비판하고 있음.
- 중국은 이로 인해 2011년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표명한 미국, 2013년 이후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정치적 대립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양상임.
- 특히,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2015년 9월과 2016년 1월에 미 해군 구축함으로 중국이 영해로 주장하는 인공섬 안쪽 12해리 수역에 순찰을 실시함. 이에 중국은 2015년 12월 최신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을 남해함대에 증강 배치하는 등 군사적 시위로 맞대응함.

## □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남중국해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

- 남중국해 해상영유권 분쟁으로 베트남, 필리핀 등을 포함한 ASEAN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나,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군사적 충돌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남중국해의 경제적 및 지정학적 이점을 고려하여 영유권 진출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13차 5개년 계획('16~'20년) 실천 방안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위해서는 ASEAN 국가와의 해상 협력이 긴요하므로, 분쟁 당사국들과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할 것으로 보임.
- 다만, UN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중재 등으로도 동 지역의 영유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지정학적 긴장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미국·일본이 동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개입함에 따라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2. BRICs 주요 정치경제 이슈

### 가. 브라질: 재정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불협화음

#### □ 정치권 내분 등으로 정부의 재정확충 대책 표류

- 2015년 7월 브라질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 등에 따라 2016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한 차례 하향조정(2.0%→0.7%)하였으나, 1개월의 단기간 동안에 목표를 재수정하여 8월에는 기초재정수지 적자(0.3%)를 편성, 2016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재정책임법\*은 재정수입을 초과하는 재정지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2014년에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함. 한편, IMF는 2016년까지 브라질의 기초재정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 \*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은 공공지출을 엄격히 제한하여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로 2000년에 제정
- 신자유주의자로 분류되는 레비 재무장관은 증세와 긴축을 골자로 하는 재정확충 대책을 발표('15.9월, 650억 헤알 규모)하였으나 2015년 12월 전격 경질되었으며, 정치권의 내분, 노동계 등의 강한 반발로 제반 정책의 입안들이 의회에서 표류 중임.
- 아울러 2015년 10월 연방회계법원(TCU)은 호세프 정부가 사회복지 관련 추가지출을 위해 국영은행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차입 후 동 자금을 정부예산 항목으로 포함하지 않는 등 2014년 재정회계를 불법적으로 조작하였다고 판결하였고, 의회에 당해년도 정부회계 내역을 승인하지 않도록 권고함.

#### □ 재정회계 조작 혐의로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

- 2015년 12월 2일 연립여당에 속해 있는 민주노동당(PMDB)의 에드워드 꾸냐(Edward Cunha) 연방 하원의장은 대통령의 정부회계법 위반을 사유로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개시함.
- 브라질 국내법상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하원의장의 탄핵절차 개시 결정이 필요함. 이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투표로 탄핵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상·하원에서 모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최종 결정됨.

- 이후 하원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12.8)되었으나, 구성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대법원의 특별위원회 해체 및 재구성 명령(12.17)이 있었으며, 성탄절 연휴 등으로 2월까지 의회가 휴정함에 따라 대통령 탄핵 정국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임.
- 현재 호세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며 수도 브라질리아 등 브라질 각지에서 찬반 시위가 확산되는 양상으로, 금번 탄핵 사태는 경기침체 및 재정위기에 직면한 호세프 정부의 국정운영에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재정정책 불확실성 확산에 따라 대외신인도 하락

- 브라질은 2009년 이후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해 왔으나, 2015년 9월 초 S&P는 8월 말 정부의 적자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 관련 불확실성 증대 등을 이유로 투기등급인 BB+로 강등하였고, 12월에 Fitch도 BB+로 하향조정함.
- 국제신용평가사 중 Moody's가 유일하게 투자적격등급인 Baa3를 부여하고 있으나, 12월초 등급 하향조정 검토(review for downgrade)를 발표하였음.
-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이자비용 확충을 위해 공공투자가 감소하고 공공부채가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더욱이 브라질 최대 기업인 국영 석유회사 Petrobras의 부정부패 스캔들에 따른 사업 축소로 민간투자 위축도 전망되는 상황임.

#### □ 대내외 환경악화로 단기적 경기회복 난항 전망

- 재정적자 회복을 위한 증세 노력 등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부정책에 대한 의회의 지지 확보가 난항을 겪음에 따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브라질 경제는 미국 금리인상,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등 어려운 대외환경에 직면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Petrobras 비리 사건으로 인프라 투자가 위축됨. 아울러, 대통령의 탄핵 논의로 정부의 정책추진력이 약화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나.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 극복을 위한 노력

###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EU의 대 러시아 제재 추이

- 러시아의 크림 반도 무력합병('14년 3월)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정부군과 러시아계 반군 간의 충돌('14년 4월) 이후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동 제재조치의 주요 내용은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에너지 관련 상품·서비스·기술 제공 금지, 국방 분야에 대한 제재 등임.
- EU와 미국은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스페르뱅크(Sberbank)를 비롯한 6개 국영은행, 주요 방산기업, 에너지 기업 등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자국 은행·기업의 신규대출, 채권발행, 지분투자 등을 금지하였음.
-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여 2014년 8월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에 대한 농산물 및 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2015년 8월 제재기간을 2016년 8월까지로 연장하였음.
-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당사국과 서방이 민스크 회의('14년 9월, '15년 2월)를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를 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무력충돌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5년 말 EU는 러시아의 민스크 협정 미준수를 이유로 2016년 7월 말까지 EU의 제재조치를 연장하였음.

### □ 국제유가 하락으로 2015년 마이너스 경제성장 추정

-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인해 2011년 이후 급격히 위축된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2014년 서방의 경제제재 시행 이후 더욱 둔화되어, 2015년에는 -3.8%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도 -0.6%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성장을 하락은 국제유가 급락과 서방의 경제제재 외에도 경제현대화와 산업다변화 정책의 성과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러시아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2015년 기준금리를 17%에서 11%로 다섯 차례에 걸쳐 인하(1월 15% → 3월 14% → 5월 12.5% → 6월 11.5% → 7월 11%)하였음.

## □ 신흥국 및 CIS 내의 경제협력 강화

-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맞서기 위해 2015년 7월 BRICs 정상회담과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을 연달아 개최하는 등 중국, 중앙아시아, 브라질 등 신흥 국가들과의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러시아는 중국의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 전체 57개 국가들 가운데 중국(30.34%)과 인도(26.06%) 다음으로 높은 6.66%의 지분율을 보유하여 향후 AIIB에서의 역할이 주목됨.
- 2010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을 토대로 2015년 1월 창설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에 아르메니아(2015년 1월), 키르기스 공화국(2015년 5월)이 추가로 가입하여 CIS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다시금 확대되고 있음.

## □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극동러시아 개발 적극 추진

- 러시아 정부는 극동러시아 지역에 경제특구 형태의 선도개발구역을 지정하여 농업, 에너지, 물류,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2015년 2월 하바롭스크와 연해주에 1차 개발 구역 3곳을 지정하였으며, 4월에는 연해주, 캄차트카주, 아무르주, 사하공화국 등에 2차 개발구역으로 6개 지역을 지정하여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연해주 15개 행정구역에 자유항을 지정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관세자유지역 운영, 외국인 무비자 제도 등을 시행할 계획임. 자유항 법안은 2015년 10월에 발효되었으며,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법안의 효력이 발생되며 자유항이 운영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극동러시아 지역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진 한국, 중국, 일본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코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규모의 국제투자유치 행사인 '극동포럼'을 2015년 9월 개최하였으며, 향후 연례행사로 지속 추진할 계획임.
-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톡, 바니노, 나호트카 등 극동러시아 항만을 개발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운송물류 루트로 발전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항만설비 현대화 및 석탄·곡물 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다. 인도: 모디노믹스 추진 현황과 전망

### □ 모디 총리, 취임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개혁 추진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2014년 5월 취임 이후 관료주의 타파, 인프라 개발, 기업환경 개선 등 친시장 정책을 통해 경제구조 개편과 정부신뢰 회복을 꾀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모디 정부는 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10대 국정과제는 크게 제조업 육성, 외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 성장, 투명성·효율성·예측가능성 제고,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인프라 개발, 사회보장 확대 및 교육·보건·수자원 개선 등으로 구성됨.
- 2015년 1월에는 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개조기구(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 NITI)를 설치하여,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대신 주 정부와의 협력과 민간 참여가 확대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재무부와 인도중앙은행(RBI)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명확한 목표 물가상승률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RBI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물가 안정을 목표로 거시경제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2015년 중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함.
- \* 재무부와 RBI 간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협약을 체결하여, 물가상승률을 '16.1월까지 6% 이하, '17.3월까지 5% 이하, 그 이후는 4(±2)%로 유지하기로 결정

### □ 모디노믹스 추진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

-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모디 총리가 취임한 2014년 7%대로 진입하여 2015년에는 7.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중국의 성장률을 추월하는 수치로, 세계적인 성장둔화 기조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임.
- 이러한 인도의 경제성장은 일시적인 호황이 아닌, 모디노믹스 추진에 따른 경제체질 개선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음.
- 연료보조금 삭감 등 재정 긴축과 제조업 활성화 등 세수기반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2013년 7.6%에서 2015년 7.2%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2013년 10.0%에 달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원자재 가격 안정과 효과적인 통화정책에 힘입어 2014년 이후 5%대에 안착하였음.

- 과도한 금 수입에 대한 규제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폭 감소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중은 2013년 1.7%에서 2015년 1.4%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외환보유액은 외국인투자 유치, 비거주자의 외화송금 등으로 증가하여 2016년 3월말에는 3,67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 SENSEX 주가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 해소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5년 1월 중 사상 최고치인 29,682pt를 달성하였으며,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2016년 1월말 24,870pt를 기록하였음.

## □ 모디 정부의 주요 개혁안은 국회 표류 중

- 인도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노동법 및 토지수용법 개정, 통합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원 내 여당의 열악한 입지로 인하여 입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노동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로 2015년 9월 1.5억 명이 파업을 하는 등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노조와의 협상은 난항이 계속되고 있음. 토지수용법 개정안은 야당과 농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통합부가가치세 도입안도 세율과 예외조항 등의 문제로 여름회기 내 상원 통과에 실패하였음.
- 정부는 'Make in India' 캠페인을 통한 국내외 투자유치와 스마트시티 100개 건설, 초고속 열차 건설 등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상기 개혁안들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 거시경제 안정세는 지속되나, 상원 내 정치적 열세가 걸림돌

- 2016년에도 인도 경제는 5%대의 안정된 물가 상승과 함께 인프라 투자와 개혁 추진 등에 힘입어 7.5%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IMF는 인도가 2020년까지 7%대의 경제성장세와 4~5%의 물가 안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다만, 인도 상원 내 여당의 열악한 입지에 따라 신속한 개혁정책 추진은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GST 도입은 2016년 1분기 중 가능할 전망이다.
- 또한, 2015년 11월 비하르 주 의회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는 등 개혁정책의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주정부의 권한이 큰 인도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협업도 개혁 추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 라. 중국: 제13차 5개년 계획과 신성장 패러다임

### □ 시진핑 정부, 향후 5년간('16~'20년)의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 중국은 2015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2016~20년까지 향후 5년간의 중국 경제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13차 5개년 계획 건의(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个五年規劃的建議)(안)'을 논의함.
  - 동 계획은 시진핑 지도부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5개년('16~'20년) 경제개발 계획으로,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성공 여부가 달린 경제성장 핵심 로드맵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한편, 2016년 3월 양회에서 결의를 통해 경제계획 세부(안)이 최종 결정될 예정임.
    - \*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인 '원바오(溫飽)'에서 부유한 단계인 '다통(大同)'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의미
    - ※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민대표대회'(전인대)와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지칭
- 금번 계획의 핵심 목표는 지난 12차 5개년 계획을 계승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임. 이를 위해 5대 발전이념으로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향(共享) 등을 제시하고, '소비와 서비스 중심의 성장 체제 완비', '제조업 및 국유기업의 구조개혁 추진'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중속성장 체제로의 신성장 패러다임을 강조함.

### □ 소비와 서비스 중심으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 지속적인 중속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투자와 제조업에서 '소비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함. 특히, 과거 적극적인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연적 성장보다는 소비와 서비스 주도의 균형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음.
  - \* 시진핑 정부는 '15년 3월 신상태(新常態, New Normal) 진입을 선언한 후 '안정 속의 발전'을 정책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선화
- 구체적으로, 수출지향형 성장 모델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하여 임금인상, 소비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 및 소비 촉진을 추진할 계획임. 더불어, 의료·교육·양로 부문의 서비스업 개방 등을 통한 서비스업 활성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중속성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함.

## □ 과잉투자 해소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 추진

- 중국 정부는 경제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로 과거 전 산업분야에 걸친 과잉투자와 국유기업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음. 최근 국내외 수요 감소로 설비가동률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과거와 같이 투자를 통한 양적 성장을 지양하는 대신, 제조업 및 국유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 추진을 통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들과 부실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폐합 실시 등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임. 특히, 부채 문제가 심각한 국유기업에게 지분구조 개혁과 함께 민간과의 혼합소유제를 적용할 방침임.
  - 제조업 강국 건설을 통한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중국제조 2025’<sup>\*</sup>를 적극 추진하고, 전략적 신흥산업<sup>\*\*</sup> 육성을 위한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전략도 강화할 예정임.
    - \*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 진입을 목표로 IT기술산업, 항공우주장비, 첨단 선박 등 10대 중점영역을 설정하여 산업고도화를 추진
    -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바이오·정보기술, 스마트제조 등의 산업을 지칭하며, 2020년까지 GDP 대비 전략적 신흥산업 비중을 15%까지 제고할 계획
- 한편, 국내 과잉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유휴설비의 해외수출 및 이전을 위해 일대일로<sup>\*</sup>, 베이징-톈진-허베이 공동발전, 장강 경제벨트 등 3대 전략사업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 육상 및 해상 교통로인 일대(一帶)와 일로(一路)를 결합한 거대경제권 개발 계획으로 일대는 중서부 개발과 중앙아시아 진출, 일로는 남부 개발과 동남아 진출을 의미
  - 특히, 일대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60여 개 국가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향후 중국의 과잉산업 문제 해결의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 중속성장 체제 전환을 위한 재정투입 확대 등 경기부양책 활용

-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계획기간 중에도 6%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이에, 최근 급격히 저하된 경제성장률 지지를 위해 기준율 및 금리 인하 등의 통화정책과 함께 지방채 발행, 지방정부 부채 차환 등의 재정정책 수단도 적극 활용할 계획임.
- 한편,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 우려가 지속될 경우, 통화 및 재정정책 등의 전통적 수단 외에도 지방채 직접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통해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할 것으로 보임.

## II . 2016년 신흥국 경제전망

1. 아시아 .....	18
2. 중남미 .....	24
3. 중동·아프리카 .....	30
4. 동유럽·CIS .....	38

확인 : 팀           장 전선준 (6255-5707)  
                              jsjun@koreaexim.go.kr

작성 : 선임연구원 조영관 (6255-5759)  
                              ykj@koreaexim.go.kr

책임조사역 고영애 (6255-5720)  
                              kya321@koreaexim.go.kr

책임조사역 박종국 (6255-5704)  
                              parkjk@koreaexim.go.kr

조 사 역 조현수 (6255-5712)  
                              hsc@koreaexim.go.kr

조 사 역 장은진 (6255-5716)  
                              eunjin@koreaexim.go.kr

조 사 역 조회연 (6255-5708)  
                              chy@koreaexim.go.kr

## II. 2016년 신흥국 경제전망

### 1. 아시아<sup>2)</sup>

#### 가. 아시아 지역 경제전망

< 아시아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지역	구분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ADB	IMF	ADB
동북 아시아	경제성장률	6.8	6.5	6.2	6.0	5.8	6.0
	소비자물가상승률	2.4	1.9	..	1.4	..	2.1
	경상수지/GDP	2.5	3.1	..	3.3	..	3.1
동남 아시아	경제성장률	5.1	4.4	4.6	4.4	5.0	4.9
	소비자물가상승률	4.2	4.1	..	3.0	..	3.3
	경상수지/GDP	2.2	3.1	..	3.0	..	2.7
남아시아	경제성장률	6.4	6.7	7.2	6.9	7.4	7.3
	소비자물가상승률	9.0	6.2	..	5.0	..	5.5
	경상수지/GDP	-1.4	-1.3	..	-1.1	..	-1.5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2015.10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5 Update, 2015.9.

#### □ 물가 안정세와 함께 6%대 경제성장률 기록 예상

- 2016년 아시아 신흥국 경제는 6%대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동북아시아는 경기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외수요 감소로 성장세가 전년 대비 둔화된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y Community) 출범 등 지역통합에 따른 성장동력 확보, 주요 국가의 경제개혁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각각 5.0% 및 7.4%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는 개혁정책 추진과 소비심리 개선으로 성장세가 회복되면서 남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임. 동남아시아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이 7%대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도 민간소비 회복, 주요 수출시장 경기회복으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달러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 등 국제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하락, 각국의 적극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등으로 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다만, 남아시아에서는 연료 보조금 감축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5%대를 상회할 전망이다.
- 미국, EU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회복, 통화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형 인프라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는 대체로 전년 수준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2) '신흥국' 개념이므로 일본은 대상지역에서 제외함.

## □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세 지속 전망

- 수출·투자 주도형 고도성장 전략의 한계로 2012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 경제성장률 역시 2013년 7.0%에서 2014년 6.8%로 다소 하락하였음. 그러나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세 지속에 힘입어, 아시아 신흥국은 2015년 6.6%에 이어 2016년 6.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 중국은 과거 외연적 성장보다는 내수·서비스 중심의 균형성장을 지향하여 과잉 설비 축소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과 더불어 소득분배 개선 및 소비 촉진을 추진함으로써 6%대의 중속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인도는 모디 정부의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남아시아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인프라 개발 지속,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동남아시아의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가 중국을 대신하여 해외투자 대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각국 정부의 시장친화적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면서 투자심리도 회복되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과 적정 물가수준 유지에 따라 소비가 활성화되는 한편,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 경기회복이 아시아 지역의 성장세 유지에 버팀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 물가수준은 전년에 이어 안정세 지속 기대

-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국제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하락과 각국 중앙은행의 물가상승 억제 정책에 힘입어, 달러화 강세 지속과 각종 보조금 감축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상쇄하며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통합부가가치세 도입 등 세제개편 노력과 함께 연료 보조금 감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전년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경상수지 흑자, 남아시아는 적자 기조

- 아시아 국가들은 전 세계 산업생산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전반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하여 소비재를 가공·수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이에, 미국, EU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 회복, 달러화 강세 등은 역내 국가의 수출을 촉진하여 경상수지 흑자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각각 3.1% 및 2.7%, 남아시아의 적자 비중은 1.5%로 대체로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나. 주요국 경제전망

### 1) 중 국

#### □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중속성장 체제 진입

- 과거 적극적인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외연적 성장보다 내수·서비스 중심의 균형성장을 추진할 계획임. 2016년에는 정부의 구조개혁과 소비진작 노력에 힘입어 6%대 중속성장이 예상됨.

< 중국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EIU	ADB	IMF	EIU	ADB
경제성장률	7.7	7.3	6.8	6.9	6.8	6.3	6.5	6.7
소비자물가상승률	2.6	2.0	1.5	1.5	1.5	1.8	2.1	2.2
경상수지/GDP	1.6	2.1	3.1	3.2	2.3	2.8	2.5	2.2

자료: IMF, EIU, ADB.

#### □ 구조개혁 노력 등에 힘입어 6%대의 중속 성장 전망

- 수출·투자 주도형 고도성장 전략의 한계에 직면하여 경제성장률은 2007년 14.2%에서 2015년 6.8%로 둔화됨. 2016년에는 외연적 성장보다는 내수·서비스 중심의 균형적 성장을 추진하며 6%대의 중속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는 과잉투자과 소득불평등 문제를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음. 특히 '안정 속의 발전'을 정책기조로 과잉설비 축소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과 함께 소득분배 개선 및 소비 촉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적인 수준 지속 예상

- 경제성장세 둔화와 함께 국제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화로 2015년 물가상승률은 1.5%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2016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한 1.8%를 기록하며 저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한편, 경기부양 정책 추진으로 2013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2%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건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 경상수지 흑자 기조 지속 등으로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 유지

- EU,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고 자본재 등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3.1%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아울러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3.4조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여,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고 있음.

## 2) 인도

### □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 추진에 힘입어 7%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 통합부가가치세 도입, 지체된 인프라 사업의 가속화 등 시장친화적 정책 기조에 힘입어 2016년 중 7.4~7.8%의 경제성장률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EIU	ADB	IMF	EIU	ADB
경제성장률	6.9	7.3	7.3	7.3	7.4	7.5	7.4	7.8
소비자물가상승률	10.0	5.9	5.4	4.9	5.0	5.5	5.2	5.5
경상수지/GDP	-1.7	-1.3	-1.4	-1.1	-1.1	-1.6	-1.4	-1.5

자료: IMF, EIU, ADB.

### □ 인프라 사업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7%대의 경제 성장세 지속

-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둔화, 조세정책의 불확실성 증대, 부정부패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2014년 이후 모디 총리의 신정부 출범 이후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경제성장률이 7%를 상회함.
- 지체된 인프라 사업들의 추진으로 2016년에는 정부지출 증가 및 투자활성화가 기대됨. 또한, 통신 등 서비스 부문의 성장, 통합부가가치세(GST) 도입 등 정부의 개혁 추진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7% 중반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 □ 소비자물가상승률 5%대 유지 및 재정적자 소폭 감소 전망

- 인도의 소비자물가는 식료품·농산물·연료 가격 상승, 루피화 약세 영향으로 2013년까지 고인플레이션을 기록함. 그러나 농산물 및 원자재 가격 안정과 중앙은행의 효과적인 긴축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대에 안착한 것으로 판단됨.
-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부 지출에도 불구하고 연료보조금 감소와 제조업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로 2016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경상수지 적자 소폭 확대되나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 지속 전망

- 2016년에는 인프라 개발 추진 및 외국인투자 증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와 소비 회복에 힘입은 소비재 수입 증가로 수입액 상승폭이 수출액 상승폭을 초과하여, 경상수지 적자폭이 2015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 정부의 꾸준한 시장친화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2016년 말 3,68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3) 인도네시아

#### □ 정부지출 확대,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경제성장세 회복 전망

- 2015년 경제성장률은 소비 둔화, 수출 부진 등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6년에는 정부지출 확대,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5%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EIU	ADB	IMF	EIU	ADB
경제성장률	5.6	5.0	4.7	4.8	4.9	5.1	5.3	5.4
소비자물가상승률	6.4	6.4	6.8	6.5	6.7	5.4	6.0	5.1
경상수지/GDP	-3.2	-3.0	-2.2	-2.6	-2.5	-2.1	-3.0	-2.1

자료: IMF, EIU, ADB.

#### □ 경제성장률은 2015년 저점을 기록한 후 반등 전망

- 물가 상승 및 루피아화 약세에 따른 소비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부진, 관료주의에 따른 정부의 인프라 관련 지출 지연 등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6년에는 경기부양과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라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규제완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세 완화, 공무원 임금 인상 등에 힘입어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다시 5%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되나, 재정수지 적자는 소폭 증가 전망

-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연료보조금의 지속적인 삭감 등으로 2013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대를 유지하였음. 2016년에는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어 5~6%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내수경기 위축, 원자재 수출가격 하락, 교역규모 감소 등에 따른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 등 정부지출이 증가하여, 2015~16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2.3%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상품수지 흑자로 경상수지 적자 소폭 감소 전망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수입액 감소로 상품수지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6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1~3.0%로 2014년 3.0%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 기조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외채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말 2,771억 달러에서 2016년 말에는 3,01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4) 베트남

##### □ 민간소비 회복을 중심으로 6%대의 경제성장세 지속

- 민간소비 진작, 외국인투자 확대,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16년에는 6%대의 경제성장과 3%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GDP 대비 과도한 재정수지 적자 비중과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는 주의가 필요함.

<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EIU	ADB	IMF	EIU	ADB
경제성장률	5.4	6.0	6.5	6.7	6.5	6.4	6.8	6.6
소비자물가상승률	6.6	4.1	2.2	0.6	0.9	3.1	1.7	4.0
경상수지/GDP	4.5	4.9	0.7	2.2	0.5	-0.9	1.0	1.0

자료: IMF, EIU, ADB.

##### □ 민간소비 회복을 중심으로 6%대의 경제성장세 지속 전망

- 전자·섬유산업 등 제조업 부문 수출 호조와 소비심리 회복, 외국인투자 확대로 2014년 경제성장률이 6%대로 회복되었으며, 2015년에도 점진적인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6.5~6.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6년에는 물가안정과 임금 인상에 힘입은 민간소비 진작과 외국인투자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6.4~6.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대로 상승,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소폭 감소

- 소비심리 회복 지연,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으로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8~2.2%의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베트남 동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2016년에는 3.1~4.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2012년 이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6.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공공부채 원리금 상환규모가 정부세입의 15%에 육박하는 등 과도한 공공부채에 대한 우려로 2016년에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펼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6.7%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세 지속 예상

- 수출 성장세 둔화와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확대로 중간재·자본재 수입이 증가하여 상품수지 흑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한편,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증가하여, 2016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 한편, 외국인투자 규제완화와 EU와의 FTA 체결로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 중남미

### 가. 중남미 지역 경제전망

< 중남미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EIU	CEPAL	IMF	EIU	CEPAL
경제성장률	2.9	1.3	-0.3	0.0	-0.4	-0.3	0.6	0.2
소비자물가상승률	7.4	8.2	12.0	12.4	..	10.5	12.7	..
경상수지/GDP	-2.9	-3.0	-3.3	..	..	-3.0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10 & Updates, 2016.1.  
 EIU, Latin America economy: EIU's latest assumptions, 2016.1.  
 CEPAL, Preliminary Overview of the Economies of LAC, 2015.12.

#### □ 유가하락, 미국 금리인상 등 경기하방 위험 작용 전망

- 2016년 중남미 경제는 -0.3%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미국의 경제 호조에 힘입어 멕시코를 포함한 중미·카리브 지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중국 성장세 둔화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남미 지역은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별로는 남미 제1의 경제대국인 브라질의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15년 -3.8%, '16년 -3.5%)이 전망되고, 강경좌파 국가들인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시장친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등 중도우파, 실용좌파 남미 국가들과 멕시코,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 대미 경제의존도가 높은 중미·카리브 국가들은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 중남미 각국의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유가 하락은 에너지 수입국인 일부 중미·카리브 국가들에게는 호재이나,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원유수출국들에게는 교역조건 악화, 수출 감소를 초래하여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로 이어짐.
- 또한, 2016년 개시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금리 상승으로 중남미 신흥국 자본유출, 통화가치 하락폭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외채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을 초래함으로써 중남미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 2015년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2016년 저성장 전망

- 2015년 중남미 경제는 2009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2016년에도 국제 원자재가격 약세, 교역조건 악화,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4년 기준 남미 전체 GDP의 41%를 차지한 브라질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15년 -3.8%, '16년 -3.5%)에 그치는 여파로 -0.3%의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 중미·카리브 국가들은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관광업 호조, 해외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원자재 수출 및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남미 국가들은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라 저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남미 지역에서 시장 친화적 거시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태평양동맹 소속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반시장적 좌파 경제정책을 고수해온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불황을 경험하고 있음. 2015년 말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 우파 대통령이 당선 되고, 베네수엘라 야당연합이 총선에서 최대 의석수를 확보한 점을 감안할 때 정책노선 변경이 전망되나, 단기간내 양국의 경제 정상화는 어려워 보임.

## □ 일부 고인플레이션 국가 외에는 안정적 물가수준 유지

- 중남미 전체 물가상승률은 2014년 8.2%에서 2015년에는 12.4%로 상승함. 그러나 각각 세 자릿수와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를 제외할 경우 중남미 전체 물가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한 자릿수 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망됨.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중남미 지역 재정수지 적자는 2009년 이후 확대되었음. 2015년 중남미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1.6%로 2014년의 1.4% 대비 소폭 악화되었으며, 2016년에도 원자재 가격 하락 지속 및 저조한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감소로 비슷한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 경상수지 적자폭은 소폭 감소 전망

- 2015년 중남미 경상수지 적자는 원유, 철광석, 대두 등 주요 수출품의 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GDP의 3.3%까지 확대됨.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 추세를 보인 경상적자가 2016년 이후 GDP의 3% 수준까지 소폭 개선될 전망이나, 이는 주로 남미 국가들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나. 주요국 경제전망

### 1) 브라질

#### □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경제침체 지속 전망

- 경기침체와 고물가를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Petrobras의 비리 스캔들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확대 및 국가신용등급 투기등급 강등의 위기 속에서 당분간 경기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EIU	CEPAL	IMF	EIU	CEPAL
경제성장률	2.7	0.1	-3.8	-3.7	-3.5	-3.5	-3.1	-2.0
소비자물가상승률	6.2	6.3	8.9	9.0	9.9	6.3	8.9	..
경상수지/GDP	-3.8	-4.4	-4.0	-3.3	..	-3.8	-3.2	..

자료: IMF, EIU, CEPAL.

#### □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 전망

- 국영 석유회사 Petrobras의 비리 스캔들 여파로 인한 석유, 가스 부문 및 인프라 사업 투자 위축으로 2015년 -3.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6년에는 현 정권의 구조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 및 내수 침체로 -3.5%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 특히, 최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개시에 따른 국내정치 불안정성 가중,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당분간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 고물가 및 재정적자 지속 예상

- 전력요금, 대중교통 요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9%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2016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헤알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엘니노 현상에 의한 국제 식품가격 상승 등에 따라 중앙은행 목표치인 4.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책중대책 발표 등 재정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건축 및 증세에 대한 노동계 저항으로 인한 제반정책의 의회비준 지연 등으로 2015~16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7%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 경상수지 적자 비중 축소 및 안정적 외환유동성 확보

- 헤알화의 가치하락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수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된 4.0%를 기록한 것으로 보임. 한편, 3,700억 달러 규모의 풍부한 외환보유액(월평균 수입액의 17개월분)을 유지하고 있어 외환유동성은 안정적인 상태임.

## 2) 멕시코

### □ 개혁정책 추진에 힘입어 경제성장세 지속 전망

- 지속적 국제유가 하락, 주요 교역대상국 및 신흥국의 경제둔화, 미국 금리인상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으나, 개혁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경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됨.

< 멕시코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EIU	CEPAL	IMF	EIU	CEPAL
경제성장률	1.4	2.3	2.5	2.5	2.5	2.6	2.8	2.6
소비자물가상승률	3.8	4.0	2.8	2.7	2.5	3.0	2.9	..
경상수지/GDP	-2.4	-1.9	-2.4	-2.5	..	-2.0	-2.3	..

자료: IMF, EIU, CEPAL.

### □ 미국 경기 개선에 따른 제조업 호조로 경제성장률 소폭 개선 전망

-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수출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유 생산량 감소 및 건설경기 회복 지연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부진한 2.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지속되는 국제유가 하락이 경기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나, 정부가 추진 중인 광범위한 개혁정책으로 멕시코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었고,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확대로 2016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2.6%로 전망됨.

### □ 물가 안정세 유지,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적자 소폭 축소 전망

- 물가는 최근 수년간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2~4%) 이내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폐소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3.0%로 전망됨.
- 유가하락으로 원유 관련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재정지출 감축 및 2014년 재정개혁을 통한 세수확보 노력으로 2015~16년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 제조업 수출액 증가를 유가하락이 상쇄하며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제조업 수출액 증가가 유가하락으로 인한 원유수출액 감소로 상쇄됨에 따라 경상수지는 GDP 대비 2.0~2.5% 수준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원유가격 하락,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의 여파로 폐소화 가치 하락은 단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며, 이는 멕시코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3) 콜롬비아

#### □ 단기적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성장세 회복 기대

- 원자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콜롬비아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단기적인 성장세 둔화를 보이거나, 최근 반군단체와의 평화협상 타결로 정치·사회적 불안이 다소 해소됨에 따라 중장기적 성장세 회복이 기대됨.

< 콜롬비아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EIU	CEPAL	IMF	EIU	CEPAL
경제성장률	4.9	4.6	2.5	2.9	3.1	2.8	2.6	3.0
소비자물가상승률	2.0	2.9	4.4	5.0	5.9	3.5	5.8	..
경상수지/GDP	-3.3	-5.2	-6.2	-6.3	..	-5.3	-6.0	..

자료: IMF, EIU, CEPAL.

#### □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지속

- 중국 경제성장 둔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2015년 성장률은 2.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인프라 및 공공 부문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긴축적 통화·재정정책에 따라 2016년 성장률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의 높은 원자재 편중 및 수출품목 집중도를 고려할 때,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의한 충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한편, 2015년 9월 콜롬비아 정부가 반군단체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평화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지역경제 및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성화되어 중장기적으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 엘니뇨 현상에 따른 세계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예상

- 콜롬비아 폐소화 가치 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국제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대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2016년에는 긴축 통화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엘니뇨 현상의 영향력 지속으로 인해 고물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재정수입의 1/4을 차지하는 석유산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015~16년 재정적자 비중은 3%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유가하락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지속

- 다국적기업의 과실송금에 따른 대규모 소득수지 적자('14년 기준 127억 달러) 발생, 유가하락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2015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6%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6년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부문 호조(원자재 제외)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임.

#### 4) 페루

##### □ 적극적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성장세 회복 전망

-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엘니노 현상에 따른 농업생산 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대규모 신규 인프라, 광산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페루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EIU	CEPAL	IMF	EIU	CEPAL
경제성장률	5.8	2.4	2.4	2.7	2.8	3.3	3.6	3.4
소비자물가상승률	2.8	3.2	3.2	3.5	3.7	2.8	3.8	..
경상수지/GDP	-4.2	-4.0	-3.7	-3.6	..	-3.8	-3.5	..

자료: IMF, EIU, CEPAL.

##### □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경제성장률 소폭 상승 전망

- 중국 경제성장 둔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엘니노 현상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 등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은 2.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6년에는 엘니노 현상의 여파에 따른 농업 생산부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프라 및 광산 개발 프로젝트 착수에 힘입어 3%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페루 정부는 Toromocho와 Las Bambas의 구리 광산 개발사업 추진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 성장정책 기조를 영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해 도로, 전력사업 등 인프라 개발을 확대할 계획임.

##### □ 국제 금속가격 하락에 따른 정부수입 부족으로 재정적자 지속 예상

- 페루 누에보솔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엘니노 현상에 따른 국제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6년에는 화폐가치 안정,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라 중앙은행 목표치인 1~3%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부진에 대응한 세금 인하, 국제 금속가격 하락으로 인한 정부수입 부족으로 2014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광업 부문의 생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2016년에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 하락, 해외 송금액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주요 수출품목인 금·구리의 국제가격 하락, 해외로의 송금액 증가로 인해 2015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3%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6년에는 신규 인프라 및 광산개발 사업 착수에 불구하고 전년의 부정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아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3. 중동 · 아프리카

#### 가. 중동 · 북아프리카<sup>3)</sup>(MENA) 지역 경제전망

< MENA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WB	EIU	IMF	WB	EIU
경제성장률	2.1	2.6	2.3	2.8	2.1	3.6	4.4	3.2
소비자물가상승률	9.3	6.5	6.5	·	7.3	5.5	·	7.2
경상수지/GDP	11.0	6.1	-4.0	-2.6	·	-4.7	-1.3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10 & Updates, 2016.1.  
World Bank, MENA Economic Monitor, 2015.10.  
EIU, Viewswire.

#### □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망

- 2016년 MENA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는 국제유가 하락세와 세계 경기침체의 지속 여부,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이란 경제의 정상화 속도, 이라크 IS 사태와 시리아 내전의 진행상황 등임.
- 산유국들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가 비석유 부문의 경쟁력 약화에도 영향을 미쳐 2016년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 지속으로 인해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인프라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 도입 및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2016년 1월 대 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이란 경제의 성장이 MENA 지역 전체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이란산 원유의 국제시장 복귀가 국제유가 하락세를 더욱 가속화하여 여타 MENA 산유국들의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이라크 IS 사태와 시리아 내전은 파리 테러 이후 서방 국가들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가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시일 내 해결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3) Middle East and Northern Africa. 북아프리카의 아랍어 사용 국가들(알제리, 리비아, 지부티, 이집트, 모리타니, 모로코, 수단, 튀니지)을 포함하는 개념



## □ 저유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경제 회복에 힘입어 3.8% 성장 전망

- MENA 경제는 2000~10년 연평균 5.4%의 성장을 시현하며 호황을 유지하였으나, 2013년 이후 성장률이 2%대로 급락하였으며 2015년에도 2.3%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경제성장 둔화의 최대 요인은 국제유가 하락 및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석유수출 부진과 그로 인한 투자율 하락임.
- 2016년에도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에 따른 산유국들의 원유수출 수입(收入) 감소로 인해 재정지출에 바탕을 둔 인프라 투자의 위축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란 경제 제재 해제 등에 힘입어 지역 전체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상승한 3.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란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0.8%에서 2016년 4.4%로 상승할 전망이다, 걸프 협력회의(GCC) 국가들은 저유가 지속에 따른 재정·경상수지 악화가 비석유 부문의 성장까지 제약해 2015년 3% 초반에서 2016년 2% 중반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 물가는 안정세가 전망되나 재정적자 규모 확대 우려

- MENA 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료·식료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2013년 9.3%에서 2014년 6.5%로 하락한 데 이어 2015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6.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6년에도 물가상승률은 5.5%로 더욱 안정될 전망이다.
- MENA 지역은 2013년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재정수입도 감소하여 2015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11.8%의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도 역시 GDP 대비 10.1%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2015년 12월 OPEC의 감산 합의 실패와 향후 이란산 원유 공급 증가 전망으로 추가 유가 하락의 가능성도 높아짐.
  - GCC의 경우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13.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도 GDP 대비 12.6%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유가 수준이 유지되고 재정지출 규모가 조절되지 않는다면 GCC 국가들의 국부펀드가 5년 내에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GCC 회원국들은 2015년 12월 부가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보조금 삭감, 추가 세원 확보 등의 재정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경상수지 적자 전환 전망

- MENA 지역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주요 산유국들의 상품수지 흑자 축소로 인해 2014년 6.1%에서 적자전환하며 2015년 4.0%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도 저유가 지속으로 4.7% 수준의 적자를 지속할 전망이다.

##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p>4)</sup>(SSA) 지역 경제전망

< SSA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WB	AfDB	IMF	WB	AfDB
경제성장률	5.2	5.0	3.5	4.2	4.6	4.0	4.6	5.4
소비자물가상승률	6.6	6.4	6.9	·	6.2	7.3	·	6.3
경상수지/GDP	-2.4	-4.1	-5.7	-3.9	-6.0	-5.5	-4.0	-5.7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10 & Updates, 2016.1.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15.6.  
 AfDB, OECD, UNDP, "African Economic Outlook 2015".

### □ 2016년에는 낮은 수준의 국제 원자재 가격 기조, 금융조건 악화로 평균 4%대 성장에 그칠 전망

- SSA 경제는 과거 수년간 기업경영 및 미시경제 환경 개선, 높은 원자재 가격, 양호한 금융조건으로 타 신흥국들보다 높은 5%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옴. 그러나 2014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원자재 가격 하락과 미국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금융조건 악화로 2015년 경제성장률은 3.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는 4.0%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15년 미국 금리인상 예고로 인해 SSA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급락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미국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는 2016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 7%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경제 성장을 위한 금리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서부 아프리카 경제는 에블라 사태의 진정에 따라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짐바브웨 등 남부 아프리카 경제는 홍수 등 급격한 날씨 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의 여파로 성장세가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반군 및 극단주의 테러 조직에 의한 치안 불안의 악화 등의 위험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음.
- 대부분의 SSA 국가들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유지에 고용 창출과 포괄적 성장에 핵심적이며, 이를 위해 인프라 투자 증대, 투자환경 개선, 소득 재분배 강화 등의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균형재정의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보조금 축소 등으로 인해 서민층과 빈곤층의 생활수준이 악화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임.

4) 아프리카 대륙 소재 국가들 중 북아프리카 국가(알제리, 리비아, 지부티, 이집트, 모리타니, 모로코, 수단, 튀니지)를 제외한 개념

## □ 각국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경제성장세의 현저한 차별화

- 아프리카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산유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저유가 기조로 2014년 6%대에서 2015~16년 3~4%대로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는 유가하락이 재정 수입·지출의 감소로 이어지며 2016년 경제성장률이 2014년 대비 2% 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할 전망이다.
-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등 중소득국 역시 고질적인 인프라 부족 문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해당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2.9%에 머무를 전망이다.
- 그러나,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등 저소득국은 유가 또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한편, 가계소비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며 평균 6.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다.

##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폭 상승, 재정수지는 적자 기조 유지 전망

-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미 달러 강세에 의한 환율 상승, 전력 부족 심화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연료 보조금 폐지,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15년 추정치인 6.9% 대비 소폭 상승한 7.3%를 기록할 전망이다.
- 대부분의 SSA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연료, 식료품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기조를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었음.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4년 3.5%, 2015년 4.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는 긴축정책 영향으로 3.6%로 축소될 전망이다.

##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의 증가 우려

- 경상수지는 주요 수출품인 1차산품의 국제가격 하락세,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본재 및 서비스 수입 등으로 적자 기조를 지속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5년 5.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추세는 2016년에도 계속되어,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대출을 통한 자금 공급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은행의 수익성 악화 및 불량채권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환율 상승으로 외채 부담이 증가하고 외환보유액이 감소함에 따라 SSA 국가들의 금융안정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 주요국 경제전망

### 1) 이란

#### □ 경제제재 해제 개시로 경제성장률 상승 기대

- 2016년 1월 경제제재 해제가 개시됨에 따라 향후 경제성장률이 4%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최근 저유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원유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개선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이란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IIF	EIU	IMF	IIF	EIU
경제성장률	-1.9	4.3	0.8	4.4	0.9	4.4	5.2	3.8
소비자물가상승률	34.7	15.6	15.1	11.6	13.7	11.5	8.8	12.5
경상수지/GDP	7.0	3.8	0.4	2.2	0.5	1.3	5.6	0.6

자료: IMF, IIF, EIU.

#### □ 핵협상 타결로 제재 해제와 경제성장률 상승 기대

- 국제사회의 대 이란 경제제재와 그로 인한 원유 생산·수출 침체 등으로 인해 이란 경제는 2012~13년 중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고, 물가상승률도 30%대로 급등하였음. 그러나 2013년 8월 Rouhani 정부 출범 후 재개된 핵협상 과정에서 취해진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혜택으로 2014년 이후 성장세를 회복하였으며, 물가상승률도 10%대로 낮아짐.
- 2015년 7월 이란과 P5+1(UN안보리 5개국 및 독일) 간의 핵협상 최종 합의문인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의 타결에 이어 2016년 1월 경제제재 해제가 개시됨에 따라, 이란의 2016년 경제성장률은 최저 4%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 유가하락으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예상

- 이란은 석유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유가의 변동에 민감한 경제구조임. 제재로 인한 원유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며, 2016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2% 내외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 원유수출 증가에도 불구, 저유가 지속으로 경상수지 회복세는 제한적

- 2012년 이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지속으로 인한 석유수출 감소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감소 추세임. 2016년에는 경제제재 해제로 원유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저유가 추세의 지속으로 인해 경상수지는 소폭 개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 사우디아라비아

### □ 저유가 지속으로 경제성장 둔화, 쌍둥이 적자 지속 전망

-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재정·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이며, 유가의 추가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재정정책 수정이 진행 중임.

<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IIF	EIU	IMF	IIF	EIU
경제성장률	2.7	3.5	3.4	3.2	3.3	1.2	1.2	1.1
소비자물가상승률	3.5	2.7	2.1	2.1	2.2	2.3	2.3	4.7
경상수지/GDP	18.2	10.3	-3.5	-2.8	-4.7	-4.7	-3.1	-7.4

자료: IMF, IIF, EIU.

### □ 저유가 및 비석유 부문 투자 위축으로 1%대로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출의 85%, 재정수입의 90% 및 GDP의 45%가 석유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 국제유가 하락 지속으로 석유 부문은 물론 비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2015년 3.4%에서 2016년 1.2%로 급격히 하락할 전망이다.

### □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경상수지 적자 지속

- 2014년 하반기 이후의 급격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2015년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21.6%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6년에도 재정수지는 저유가 지속으로 GDP 대비 19.4%의 적자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됨.
- 저유가로 인한 원유수출액 감소('15년 원유수출액은 '12년의 절반 이하로 급감)로 경상수지도 2014년 GDP 대비 10.3%의 흑자에서 2015년 GDP 대비 3.5%의 적자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도 GDP 대비 4.7%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초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정책 등에 힘입어 2~3%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유류보조금 폐지를 발표('15.12.29)하는 등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정책 변경 추진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보다 상향될 가능성이 있음.

### □ 유가 추가하락 부담에 따라 재정정책 수정

-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SAMA Foreign Holdings)가 운용 중인 6,718억 달러 규모(세계 6위)의 해외자산은 대외지급능력 유지의 안전판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가 추가하락으로 재정적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부가세 도입과 정부지출 축소를 추진하는 등 재정정책 수정에 나서고 있음.

### 3) 아랍에미리트

#### □ 저유가로 경제성장 둔화, 부동산 경기 과열로 물가 상승 전망

- 국제유가 하락세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소비자물가는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아랍에미리트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IIF	EIU	IMF	IIF	EIU
경제성장률	4.3	4.6	3.0	3.3	3.3	3.1	3.7	2.1
소비자물가상승률	1.1	2.4	3.7	4.4	4.1	3.0	2.9	3.1
경상수지/GDP	18.4	13.7	2.9	3.0	0.5	3.1	3.3	-1.6

자료: IMF, IIF, EIU.

#### □ 저유가 지속으로 경제성장률이 3% 수준으로 하락

- 2014년에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유생산량 증가와 금융·관광 등 비석유 부문의 성장으로 4.6%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2015년에는 저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3%대로 성장률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2016년에도 저유가 지속의 영향으로 3%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부동산 경기 과열로 물가 상승 전망, 재정수지 적자 지속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5년에는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임대료 상승 및 전력 보조금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3.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는 부동산 임대료 상승세 완화로 3.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복지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 지속으로 재정수지는 2014년 GDP 대비 5.0%에서 2015년 GDP 대비 5.5%로 적자 전환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도 GDP 대비 4.0% 수준의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상수지 흑자 축소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 경제성장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14년 13.7%에서 2015년 2.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도 3.1%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 약 0.9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 등 풍부한 해외자산 규모는 현재의 저유가 추세가 지속되더라도 향후 수년간은 안전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재의 재정적자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해외자산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4) 나이지리아

##### □ 저유가 기조 지속으로 경제지표 악화

-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는 국제유가 하락세와 환율상승이 경제성장 하락, 물가상승률 상승, 재정수지 적자 지속, 경상수지 적자 전환으로 이어지며 경제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

##### 나이지리아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단위 : %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IIF	EIU	IMF	IIF	EIU
경제성장률	5.4	6.3	3.0	4.8	2.8	4.1	5.7	2.7
소비자물가상승률	8.5	8.1	9.1	8.8	9.0	9.7	8.7	10.4
경상수지/GDP	3.6	0.2	-1.8	-1.7	-2.9	-1.2	-0.2	-3.3

자료: IMF, IIF, EIU.

##### □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4%대로 둔화될 전망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제1위의 산유국으로, 석유 부문이 GDP의 14%, 재정 수입의 70%,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국제유가 등락과 산유량 증감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2014년 국제유가 하락세 등의 악재 속에서도 비석유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6.3%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 부문 부진, 재정수입 감소, 비석유 부문 투자 감소로 2015년 경제성장률은 3.0%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는 다소 개선된 4.1%를 기록할 전망이다.

##### □ 소비자물가 상승 및 재정수지 적자 기조의 지속 전망

- 상당 기간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입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통화정책 운용으로 2014년 8.1%까지 안정되었으나, 2015년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9.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9.7%로 상승할 전망이다.
-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재정수지는 2015년 GDP 대비 2.8%의 적자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나, 신정부의 내각 구성 지연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으며 2016년 동 비중은 2.0%로 낮아질 전망이다.

##### □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 감소 전망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로 인해 경상수지는 2015년 GDP 대비 1.8%로 적자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2016년에는 수입물가 상승, 낮은 경제성장률이 총수입액 증가를 억제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다소 낮아진 1.2%를 기록할 전망이다.

## 4. 동유럽·CIS

### 가. 동유럽·CIS 지역 경제전망

< 동유럽·CIS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EIU	IMF	EIU
동유럽	경제성장률	2.9	2.8	3.4	3.3	3.1	2.9
	소비자물가상승률	4.3	3.8	2.9	-0.4	3.5	1.2
	경상수지/GDP	-3.8	-2.9	-2.1	-0.4	-2.4	0.6
CIS	경제성장률	2.2	1.0	-2.8	-3.6	0.0	0.0
	소비자물가상승률	6.4	8.1	15.9	18.4	8.9	9.0
	경상수지/GDP	0.7	2.2	2.4	..	2.5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10 & Updates, 2016.1.  
EIU, Viewswire, 2015.12.

#### □ 동유럽 경제성장률은 회복세 지속, CIS는 저성장 유지 전망

- 2016년 동유럽 경제는 유로존 경제의 점진적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3%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CIS 지역의 경우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 및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15년 마이너스(-) 성장에 그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으나, 2016년에는 소폭 개선되어 0.0%의 '제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별로 터키와 폴란드는 전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에너지 수출의존도가 큰 러시아는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과 서방의 경제제재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유국인 카자흐스탄도 유가하락 등으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동유럽 지역의 경우 국제유가 및 상품가격의 하락세 지속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겠으나, CIS 지역에서는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동유럽 지역은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CIS 지역은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석유·천연가스 수출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등 대체로 2015년과 유사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 동유럽 경제성장률은 회복세인 반면 CIS는 저성장 지속 전망

- 동유럽 지역은 러시아 경기침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 및 유로존 경제의 점진적 회복 등에 힘입어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평균 3%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별로는 헝가리, 폴란드 등이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반면, CIS 지역 경제는 국제유가 하락과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등에 따른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하락, 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경제위축 등의 여파로 2015년 평균 -2.8%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도 평균 0.0% 수준의 '제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동유럽은 안정세, CIS는 상대적 고물가 전망

- 동유럽 지역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저유가 등에 힘입어 2015년에 2.9%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터키(7.4%)를 제외한 국가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6년에는 국제 상품가격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5% 수준으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CIS 지역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5년에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급등하여 15.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도 전년 대비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동유럽 지역에 비해 높은 8.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동유럽 지역은 재정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5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의 1.9%로 전년(2.3%)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2016년에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CIS 지역의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에너지 수출국들의 재정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0.9%) 대비 확대된 4.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6년에는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된 3.1%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경상수지는 동유럽은 적자, CIS는 흑자 지속 전망

- 동유럽 지역은 경상수지 적자 기조를 지속하여 2015년에 GDP 대비 2.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어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별로는 터키가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등의 영향으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CIS 지역의 경상수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에너지 수출국의 상품수지 흑자 유지에 힘입어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2015년에는 GDP 대비 2.4%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도 거의 동일한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나. 주요국 경제전망

### 1) 러시아

#### □ 경기침체 및 높은 물가, 재정수지 적자 지속

- 국제유가 하락세와 서방의 경제제재 지속으로 인해 2016년에도 -1.0%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대의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재정수지 적자와 경상수지의 불황형 흑자 등이 전망됨.

<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IIF	EIU	IMF	IIF	EIU
경제성장률	1.3	0.6	-3.7	-4.5	-3.8	-1.0	-1.0	-1.3
소비자물가상승률	6.8	7.8	15.8	15.7	15.5	8.6	8.2	8.7
경상수지/GDP	1.6	3.2	5.0	5.2	5.0	5.4	4.4	4.3

자료: IMF, IIF, EIU.

#### □ 국제유가 하락과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 전망

- 2015년 러시아 경제는 국제유가 하락과 서방의 경제제재의 여파로 -3.7%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1.0%의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 높은 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재정수지 적자 지속 전망

-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루블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연평균 15.8%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환율 상승은 2016년에도 미국 금리인상 등의 요인으로 지속되어,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낮으나 여전히 높은 8%대 후반에 이를 전망이다.
- 2016년에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수출액 감소로 재정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재정수지가 GDP 대비 3.6%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경상수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액 감소로 불황형 흑자 지속 전망

- 2015년에는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중심으로 수출액이 감소하였으나, 루블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액의 대폭 감소로 경상수지가 불황형 흑자를 기록하였음. 이러한 추세는 2016년에도 지속되어, 경상수지는 GDP 대비 5.4%의 불황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 터 키

### □ 경상수지 적자 지속, 3%대의 경제성장률 기록 전망

-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아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테러 발생과 난민 유입 등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투자 감소 우려, 높은 실업률 및 리라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3%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터키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IIF	EIU	IMF	IIF	EIU
경제성장률	4.2	2.9	3.0	3.2	3.9	2.9	2.5	3.4
소비자물가상승률	7.5	8.9	7.4	7.6	7.7	7.0	8.7	8.4
경상수지/GDP	-7.9	-5.8	-4.5	-4.7	-4.7	-4.7	-5.3	-4.7

자료: IMF, IIF, EIU.

### □ 경제성장률은 3%대 수준 지속 전망

- 2010~13년 평균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긴축적 통화정책 등에 따른 국내수요 위축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에 따른 리라화 가치의 추가 하락 가능성, 10%대의 높은 실업률 및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투자활동 감소 우려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소비자물가상승률 7%대, 재정수지 적자 비중 확대 전망

-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리라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중기 목표치인 5%를 상회하는 7.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6년에도 국제유가 및 상품가격 일부 회복 등으로 인해 7~8%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긴축 재정정책의 지속으로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6년에는 테러 발생 위험의 고조로 인한 정치적 긴장감, 경제활동 위축 등의 영향으로 재정악화 가능성이 존재하여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1.9%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지속 전망

- 2015년에는 리라화 약세로 인한 상품수출 증가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5.8%) 대비 소폭 개선된 4.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3) 폴란드

#### □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경제성장 회복세 지속 전망

-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경제규모 대비 크지 않은 수준이며, 2016년에는 3%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신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 등의 우려가 존재함.

< 폴란드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IIF	EIU	IMF	IIF	EIU
경제성장률	1.7	3.4	3.5	3.5	3.5	3.5	3.4	3.1
소비자물가상승률	0.9	0.0	-0.8	-1.0	-0.9	1.0	-0.2	1.2
경상수지/GDP	-1.3	-1.3	-0.5	0.6	0.0	-1.0	0.3	-0.8

자료: IMF, IIF, EIU.

#### □ 경제성장률은 3% 내외로 회복세 지속 전망

- 2015년 경제성장률은 내수 활성화 및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3%대의 회복세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2015년 10월 총선에서 당선된 법과정의당의 정책이 기업에 다소 비친화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투자가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됨. 상품 가격 하락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외부요인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나, 2016년에도 경제성장률은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세,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확대 전망

-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식료품 가격 하락 등으로 -0.8%의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는 양적완화 정책의 시행이 예상되어 1.0%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공기업 민영화, 세율인상 및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 등을 통해 축소되어 2015년에는 2.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6년에는 신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 경상수지 적자 소폭 확대 전망

- 2015년에는 낮은 국제유가, 주요 수출국인 독일의 경제회복 등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전환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1.3%) 대비 개선된 0.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2016년에는 즈워티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소폭 상승 전망 등으로 인해 등으로 적자폭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4) 카자흐스탄

**□ 국제유가 하락세로 낮은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 적자 지속 전망**

-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며, 에너지 수출규모 감소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탱게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감소로 재정·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

단위: %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IMF	ADB	EIU	IMF	ADB	EIU
경제성장률	6.0	4.3	1.5	1.5	1.2	2.4	3.3	-2.2
소비자물가상승률	5.8	6.7	6.3	8.9	6.6	8.6	7.9	15.4
경상수지/GDP	0.4	2.7	-3.0	-5.2	-3.2	-4.1	-3.2	0.5

자료: IMF, ADB, EIU.

**□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저성장 전망**

- 2015년 경제성장률은 수출의 80%를 점유하는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국제가격의 대폭 하락, 주요 무역상대국인 러시아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1.5%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추세는 2016년에도 지속되어, 카자흐스탄 경제는 2016년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 재정수지 적자 지속 전망**

- 미국 금리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16년에도 2015년과 마찬가지로 탱게화의 미 달러 대비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6.3% 추정) 대비 상승한 8.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국영 석유기업의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정수지가 GDP 대비 3.2%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도 GDP 대비 0.2%의 적자가 전망됨.

**□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쌍둥이 적자 전망**

- 2015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액 감소로 인해 경상수지 역시 GDP 대비 3.0%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도 저유가의 지속으로 경상수지가 GDP 대비 4.1%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쌍둥이 적자의 장기화 가능성이 우려됨.